

한 여름에 찾아온 산타...아동센터에 특별한 추억 선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타운 정책참여단' 8월 크리스마스 행사
세대 간 나눔·공감 문화 확산...요리교실서 만든 간식 전달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산타가 지역 아동들을 찾아왔다.

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남구 노대동) 어르신 공공정책패널이 무더운 여름철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공공정책패널 정책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아동들과 소통하며 세대 간 교류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빛타운 정책참여단 추진위원, 빛고을타운 직원 10여명과 무등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아동 20여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공정책패널 정책참여단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도자기체험세트를 전달하고, 타운 해피남 요리교실에서 정성껏 마련한 간식으로 선물했다.

이어 아동들과 함께 도자기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했는데, 아동들은 이 자리에서 직접 만든 머그컵

을 공공정책패널들에게 선물해 서로에게 한겨울 크리스마스 축제와 같은 즐거운 시간이 펼쳐졌다.

특히 이 행사는 단순한 후원 활동을 넘어 어르신과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용덕 빛고을타운본부장은 “이번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추억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세옥 무등지역아동센터장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선물해 주신 도자기체험세트와 맛있는 간식 덕분에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체험물품을 후원하고 이날 행사에서 직접 전달에 나선 임형택 빛타운 정책참여단 추진위원장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가



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남구 노대동) 어르신 공공정책패널이 무더운 여름철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타운 정책참여단’ 사업은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 등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과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 참여 등의 활동을 비롯해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설농업기술원은 최근 전남4-H연합회와 함께 농업기술원에서 ‘청년4-H 과제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남광주농기원, ‘청년4-H 과제경진대회’ 성료

청년농업인 300명 참여... 농업 역량·우수 활동사례 공유

전남광주통합특설농업기술원은 최근 전남4-H연합회와 함께 농업기술원에서 ‘청년4-H 과제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이 이끄는 미래농업. 성장하는 전남4-H’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청년4-H회원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는 청년4-H회원들의 농업 역량을 높이고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회원 간 교류를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행사에서는 농업 미션 챌린지를 비롯해 시·군별 농산물 전시부스, 농기계 활용 경진, 농업골든벨,

과제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업미션 챌린지는 농업기술원 전시관을 활용해 팀별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농업 관련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팀원 간 협업 능력을 겨뤘다.

시·군별 농산물 전시부스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전시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특징과 우수성을 홍보했다.

청년4-H 과제 공모전에서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회원들이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참

가자들은 창의적인 영농 모델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공유했다.

대회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주시4-H연합회에는 종합우승기와 상장이 수여됐으며, 분야별 경진 우수자에게도 상장이 전달됐다.

아울러 청년4-H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회원 10명에게는 통합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용철 전남광주농기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4-H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농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폭염 속 ‘시원한 쉼표’

40도 넘는 무더위에 얼음물·음료 무료 제공...안전운전 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을 지키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정문 앞에서 대기하는 지역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Cool 음료 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택시기사들에게 휴식과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후 2시부터 대기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얼음물과 각종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한 ‘졸음 운전 방지 캠페인’도 진행했다.

졸음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기사들을 대상으로 졸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료와 사탕, 껌 등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행사에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평균 200~300명의 택시기사가 방문하는 등 지역 택시기사들의 휴식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음료 제공 서비스 역시 폭염 속 운행에 나서는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 음료를 전달받은 택시기사 이준호씨는 “무더위와 피로로 힘든 상황에서 백화점이 준비해준 시원한 음료가 큰 힘이 됐다”며 “다른 동료 기사들에게도 알려 함께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구성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택시기사님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시원한 음료와 함께 잠시나마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800주 병해충 방제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담양군은 여름철 갈변 피해가 발생한 메타세쿼이아의 생육을 회복하고 가로수길의 푸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와 엽면시비를 실시한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응애 등 병해충과 강한 햇빛으로 메타세쿼이아의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은 피해 확산을 막고 부족한 영양분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해당 기간 두 차례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 대상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메타프랑슈 일원의 가로수 약 800주다. 방제는 7일까지 이뤄진다. 응애 방제 약제와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등 영양제를 혼합해 잎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객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고소방제차량을 이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앞서 겨울철 제설제 등으로 인한 염해와 갈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메타세쿼이아와 낙우송 등 약 116주를 대상으로 영양제 공급과 관수 작업, 물주머니 설치, 토양 개량, 발근촉진제 처리 등 생육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병해충 방제와 영양공급을 적기에 추진해 메타세쿼이아의 생육을 회복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면서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아름다운 경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본사방문

▲이오숙 전남광주통합특설시소방본부장

1억3800만원 상당 AI 통역 서비스 42개 언어 외국인 의사소통 지원

2026어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AI 기술 전문기업 클라이온·하이퍼바벨과 각각 AI 통역 서비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장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국어 통역과 박람회·여수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클라이온은 5100만원 상당의 AI 통역 서비스를 후원한다. 클라이온은 박람회장 종합안내소와 매표소 등에 태블릿 20대를 설치해 외국인 관람객과 안내요원이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면형 AI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포함해 총 28개 언어를 지원하며, 외국인 관람객의 입장권 구매부터 박람회장 이용 안내, 관람 문의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퍼바벨은 8700만원 상당의 AI 통역 서비스



어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AI 기술 전문기업 클라이온 (사진 왼쪽)·하이퍼바벨과 각각 AI 통역 서비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장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국어 통역과 박람회·여수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를 후원한다. 하이퍼바벨은 박람회장 주요 교차로에 디지털 사이니지(키오스크) 3대를 설치하고, 현장 안내요원의 모바일 기기에도 AI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포함한 총 42개 언어를 지원하며, 단순 통역 서비스를 넘어 박람회 관련 정보는 물론 여수의 맛집, 숙박, 교통, 관광지 등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AI 통역 서비스 후원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편리한 관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든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